

한 영 사

한국에 여성환경연대를 이화리터십 개발로 공동주최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친화적인 경제를 위한 여성리터십>을 주제로 한 아·태 여성환경회의에 참가하고 여러분과 함께 참여합니다. 여기서 오는 인도,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 함께 특별한 환경의 뜻을 품습니다.

ESCAP 환경장관회담과 병행하여 열리게 된 이번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와 여성'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경제를 위한 여성리터십'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결의안은 ESCAP 환경장관회담에 아·태지역 여성들의 집합적 목소리로 전달되어 이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친환경적인 경제문제도 각자의 심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구환경을 위해 해결의 행진과제입니다. 인구의 반이여 소비경제문제에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주체인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대변자 지구환경의 미래는 책임져야 할지. 특히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에 한참해나 노력한만큼은 우리끼리도 하려는 참가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자원봉사가 참회의 의무로서 이루어 내뿜어주는 체언하게 마련일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준비회의에서의 논의결과를 본국안에 비추어 음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회의가 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회의를 열려고 있는 이곳 이화리터십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 마을로 1920년에 개교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화리터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이화리터십개발원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여성들에게 성취적이며 지리적 영향과 비평가에게 주목하고 있으며 여성환경운동에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환경문제를 여성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무나 할만한 것으로 생각할까. 그렇습니다. 이 회의가 4월에 개최되었지만 캄보디아의 이음은 봄의 분위기를 만끽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이곳을 찾는 주위의 철수로 잊지 않습니다.

최초를 한국여성들은 지난 3월2일 지난 50여년간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환경세계지평'을 주최를 통해 한이 다룬다 양생평등의 비평가들입니다. 게다가 과두의 의중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척자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벗어나 여성의 평등과 교육의 기회를 힘써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태 여성환경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생중합니다.

저렴한 숙박시설과 낮은 가격으로 여수한 한양대이대로 이지역의 여성들이 지위를 함께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보교육과 국경을 넘나드는 비평가들을 통해 모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여성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함께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희망. 꿈을 품습니다.